

영광군, 연중 스포츠 대회 유치... 지역경제 활력소

4월부터 전국규모 대회 경제 효과 40억원 기대

영광군이 4월부터 월 1회 이상 전국 규모 스포츠 대회를 개최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29일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6일부터 2023년 2월12일까지 축구, 검도, 농구 등 스포츠리그를 마친 바 있다.

스포츠리그는 전국 초·중·고등부 축구 50팀 1225명, 전국 중·고등부 검도대회 39팀, 650명, 전국 고등·대학 농구 전지훈련 26팀, 350명 등 총 115개 팀 2225명 규모다.

리그 기간 동안 학부모 및 관계자 포함 연인원 4만여 명이 방문했으며 경제 효과만 4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군은 재정비 기간을 거쳐 지난 18~19일 제9회 현정화배 탁구대회를 시작으로 4월부터 전국 대회 13개를 포함, 32개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대회 일정은 △4월-제48회 협회장기 전국중고남녀 농구대회(4월4~12일)·제52회 전국 중별 펜싱 선수권대회(4월15~22일) △5월-전국 초등학교 테니스대회(5월19~22일) △6월-전국 수상스키 대회(6월15~18일)·전국 장애인 양궁대회(6월15~18일) △7월-전국 중고 배구 선수권대회·전국 중별 농구 선수권대회

(7월25일~8월4일)·하계 전국 초등학교 축구대회 △8월-전국 체조 선수권대회(8월17~20일) △10월-검도와 수상스키 전국 체육대회(10월13~19일) △11월-당구·양궁 전국장애인 체육대회(11월3~8일)·전국 대학 태권도대회(11월12~15일) △12월-전국 당구대회(12월17~25일) 등이다.

도 규모 대회는 지난 9일 전국소년체전 축구 전남예선을 시작으로 17개 대회를 확정했다.

군은 2024 제63회 전남체전 및 제32회 전남 장애인체전 유치에도 성공했으며 대회 준비에 한창이다.

양 체전은 2024년 4월 중 영광군 일원

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선수단 규모는 전남체전 22개 종목에 2만명, 장애인체전 21개 종목에 1만500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군은 전국 규모 체육대회와 2024년 양체전의 성공 개최를 위한 숙박업소 대표자와 간담회를 지난 22일 개최했다. 숙박업 중앙회 영광군 지부는 대회 기간 동안 선수단 우선 예약 협조, 부당요금 근절, 숙박시설 환경개선 및 청결한 위생 등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전국 규모 스포츠 대회 등을 위해 숙박, 음식, 안전 등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다문화 가정 주거 불편해소 봉사 함평군 나산면 복지공동체



함평군 나산면 우리동네 복지공동체가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주거 개선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도배 및 장판 작업뿐 아니라 집안 곳곳에 방치된 생활쓰레기, 의류 정리 활동을 펼쳤다.

정화자 나산면장은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벼 병해충 공동방제 확대 영광군, 방제 횟수 1→2회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2023년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을 농가별 방제 쿠폰을 발행해 방제 단가는 기존 ha당 6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높이고 방제 횟수도 기존 1회에서 전면적 2회 방제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은 드론·광역방제기 등을 활용해 병해충 공동방제로 방제효율을 향상시켜 화학비료 사용량을 절감, 지속가능한 농업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진행된다. 고령·여성농업인 농약방제 노동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친환경과 일반답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자체예산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영광군은 벼 병해충 공동방제단과 업무협의를 통해 유류비·인건비 등 생산비 향상을 고려해 방제 단가를 올해부터 6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높였다.

농촌지역 인력부족 및 농약 방제 안전사고 등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 방제 횟수는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 추진한다.

친환경단지 보호대책도 강화해 방제일자, 방제시간을 사전 조율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기방제를 통해 방제효과를 높이고자 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지역 관련 유물 수집 접수 곡성군, 역사박물관 건립 목표

곡성군(군수 이상철)은 지난 27일 역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해 지역 관련 유물 수집에 나서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수집 대상은 곡성 역사, 문화, 생활상을 담고 있거나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물들로 자료의 출처가 분명해야 한다.

접수는 개관 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기증 희망자는 먼저 곡성군 문화체육과 문화재관리팀에 기증 및 기탁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방법은 우편(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곡성군 문화체육과) 또는 이메일, 팩스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신청서 서식은 곡성군 공식 홈페이지의 열린군정·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곡성군 측 담당자가 현장 방문을 통해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유물을 수집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곡성군청 문화체육과 문화재관리팀(061-360-8482)에 문의하면 된다.

곡성=김대영 기자



곡성군,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곡성군은 28일 곡성을 서계리 일원에서 공무원, 유관기관 단체, 곡성군 임업후계자 협회 회원 등 300여 명이 참가해 편백나무 묘목 총 1500그루를 식재했다.

함평군 제공

'걸리면 과태료 2000만원' 함평군, 지역화폐 유통 단속

4월3~28일 일제단속

함평군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4월3일부터 28일까지 일제 단속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함평군은 한국조폐공사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부정 유통으로 의심되는 가맹점을 사전 분석하고, 주민신고센터를 운영해 접수된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단속을 추진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행위,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가맹점이 부정하게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 유통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 수급액 환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도 한다.

함평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함평 지역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병해충 예방 첫걸음' 장성군, 벼 종자 소독 연시회

장성군은 장성농협 육묘장에서 벼 종자 소독 연시회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농가에 제공되는 벼 보급종은 전량 소독되지 않은 종자로 도열병, 이삭누룩병, 키다리병 등 병해충을 예방하려면 소독작업을 거쳐야 한다. 키다리병은 심할 경우 전체 수확량 30%까지 손해를 볼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연시회에는 50여 명의 지역 농업인이 참여해 종자 소독 과정을 참관했다.

일반벼는 약제를 희석 배수에 맞게 희석한 다음 물 20ℓ 기준 10kg 종자를 넣고 30도에서 48시간 동안 소독기에 담가 둔다.

친환경벼는 온탕소독을 실시한다. 물 100ℓ에 벼 종자 10kg을 넣고 60도에서



장성군이 최근 장성농협 육묘장에서 벼 종자 소독 연시회를 진행했다.

장성군 제공

10분간 담근 뒤 다시 찬물에 30분간 식힌다.

별씨는 소독 전 소금물(메벼는 물 20ℓ 당 소금 4.2kg·찰벼는 물 20ℓ 당 소금 1.3kg)에 담가 물 위로 떠오르는 종자를 골라내고 나머지만 그늘에 말리면 된

다. 장성군 관계자는 "벼 종자 소독은 병해충 예방과 고품질 쌀 생산 첫걸음이다"며 "현장 기술지원을 통해 소독 방법과 중요성을 전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장성군, 월산마을 생활여건 개선

장성군은 장성을 월산마을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공모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공모는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취약지역 주민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장성을 월산마을은 밀집된 노후주택과 좁은 골목길을 지닌 오래된 지역이다. 기반시설이 부족해 재난·재해 발생 시 주민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

공모 선정을 통해 국비 70%를 지원받게 된 장성군은 2026년까지 사업비 26억 원을 투입해 노후주택, 마을안길 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지역민의 생활 안전도를 높이는 인프라 구축과 주민역량 강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월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병행해 쾌적한 생활환경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성=유봉현 기자

국산김치 사용지정 업소 대상 화순군, 식자재 구입비용 지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인증 업소에 식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입산 김치보다 3배 비싼 국산 김치를 사용하는 외식업소 부담을 줄이고 국산 김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게 됐다.

대상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일반음식점 중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김치협회)로부터 국산김치 사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229개 업소다.

1곳당 최대 25만원까지 연중 1회 지원하며 국산 김치 제조에 필요한 고춧가루, 양파, 소금, 마늘, 젓갈 또는 김치 완제품을 전남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소평물 납도장터를 통해 구매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인증 업소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4월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미인증 업소가 지원받고자 하면 사전에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를 인증 받아야 한다.

인증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센터에서 제공한 지정신청서와 국산 김치 재료구입 내역서 등을 손수 작성해 제출하거나 김치협회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화순=김선종 기자